

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

■ 세입여건 ■

- (자체수입) 내수경기 회복 및 세입관리 내실화 등으로 세입여건 전반적 개선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
 - (지방세) 내수경기 일부 회복,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등으로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, 경기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
 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관리 체계 내실화,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- (이전수입) 기업실적 호조,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으로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 예상
 - 단기적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수입 여건도 개선되어 이전재원 증가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
 - 중기적으로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 유지 되면서 자치단체 이전재원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■ 세출여건 ■

-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, 인구변화 대응,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 - (지역경제 회복)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, 주민체감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
 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·의료 등 복지지출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예상
 - (양극화 완화) 청년·지역·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전망
-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,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
 - (지출구조조정) 사업의 타당성·효과성 등 재검토,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비·폐지하여 재정여력 확보
 - (성과중심운용)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정효과 극대화

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

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■

-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
 - 민생안정·경제활력 사업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하고,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을 충실히 수립
 - 사업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만 효율적으로 편성
-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 재정역량 총동원
 - 회계·기금 간 예수·예탁을 통해 장기 적립·예치되는 재원이 없도록 적극 활용
-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이월 불용 최소화
 - 예산 집행률과 더불어 집행규모 관리 병행, 집행계획 사전 수립 및 애로사항 사전 검토·협의 추진
 - 추경시 편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강화, 사고이월 승인시 집행 가능성 엄밀히 판단

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 ■

-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
 - 추진 중 사업이라도 집행이 더디거나, 유사·중복적 사업은 소요 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·폐합 또는 사업방식 변경
 - 자체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재심사
 - 관행적 홍보비·출장비·행사비 등 절감하여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
- 성과평가에 기반한 예산편성 및 재정사업 관리
 - 성과등급 할당 및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의 예산삭감 철저 관리, 성과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·포상 적극 지원